신금강 풍광에 담긴 깨달음의 선시

〈현재 천성산〉



신금강내원사시선
글 춘담문인 해담 등
도서출판 통도
2만2000원

경봉 선사 천성산 찬시 요청에
통도사 성해 선사와 당대 문인
詩 170여 수 보내와 詩選 묶어
경봉 선사 선양위해 한글 풀이
42주기 추모다례재서 봉정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경봉 선사는 삼소굴에 거처하면서 청백가풍을 지키고, 승풍진작과 후학 양성에 힘썼다.

1920년 근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경봉 선사는 새로운 금강(新金剛, 현 천성산)의 경치를 기술하려다 붓을 던져두고 침묵했다. 그리고 시를 한 수 읊었다.

"산천에 만 가지 기이한 모습 만들어내니/ 천고의 영웅들 진리의 지팡이로 머무르네!/폭포 떨어지는 바위에는 백옥 빛 흩날리고/ 구름 걷힌 하늘 끝에 뭇 봉우리들 드러나네./ 절은 맑은 기운 품어 마음은 선정에 들고 /봄은 매화 향기에 젖으니 학도 소나무에 졸고 있네 /금강산이 어느 곳인가 넌지시 물었더니 /노란 꽃잎 흐르는 물과 달빛 아래 종소리 가리키네."

내원사 주지로 부임한 경봉 선사는 천성산의 절경과 심오함을 담기에는 자신의 문장이 졸렬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경봉 선사는 신금강이라 불리는 천성산을 보고 소감을 담은 시를 보내줄 것을 통도사 사보인 〈축산보림〉에 담아 부탁했다.

요청에 응답한 전국의 스님들과 당대 문인들은 시를 적어 스님께 보냈고, 시 170여 수를 모아 책 〈소금강 내원사 시선(小金剛 內院寺 詩選)〉으로 묶었다.

책에는 경봉 스님의 자작시와 통도사 중흥조 성해 선사, 구하 스님, 월하 스님, 벽안 스님, 범어사 성월 스님, 송광사 향봉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의 시가 담겼고, 한영렬 양산군수와 전우석, 전용규, 전경호 등 전국 문인, 한학자 이가원, 독립운동가 등 승속을 넘어 수많은 이의 시를 담았다. 또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잘 알려진 위암 장지연 선생의 시도 수록됐다.

이들의 시를 편지로 받아서 옮겨 적거나 구술한 것을 직접 기록하는 등 경봉 선사는 직접 친필 서체로 적어 책을 정리했다. 책은 천성산의 풍광을 신금강이라 부르며 불교 선문화를 주제로 깨달음을 담은 선시를 모은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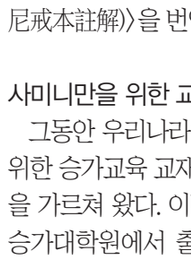
〈소금강 내원사 시선〉은 재가불자 오현주와 구참 월문 선사가 소장하고 있다가 2015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에 기증해 그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통도사 경봉문도회는 주축이 되어 번역 작업을 시작했고 한문으로 기록된 시선집을 한글 풀이하여 발행했다. 바로 〈신금강내원사시선(新金剛 內院寺 詩選)〉이다. 경봉 선사 열반 41주기를 맞아 스님의 수행과 정신을 선양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와 선인의 발자취를 저장하고 또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다. 한글 번역은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이 감수를 도왔다. 〈신금강내원사시선〉은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에서 봉행 될 경봉 스님 열반 42주기 추모다례재에서 봉정하고 배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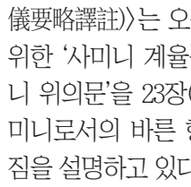
책 〈신금강내원사시선〉은 내원사 및 천성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종정 성파 대종사의 서문, 불국사 대학원장 덕민 스님,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스님,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의 발간사 및 서문이 담겨있다. 아울러 1920년대 〈소금강 내원사 시선〉에 담겼던 통도사 대율사 해담 스님과 강성찬 스님의 서문과 〈축산보림〉 제3호에 경봉 스님이 직접 작성한 글 '양산의 신금강'도 실려있어 이해를 돕는다.

책 번역을 담당했던 반산 스님은 "이번 책 발간을 준비하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영축산 도량과 신금강으로 일컬었던 영산 천성산은 통도사의 성해문손인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고 가꾸어야 할 최고 최상의 도량임을 알게 되었다"며 "이번 출간을 계기로 구하, 경봉 양대 선사의 유묵과 아울러 천성산 내원사를 신금강산으로 불렀던 옛 정취를 감상하는 좋은 인연으로 삼으려 한다"고 말했다.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번역불사
사미니·비구니 '율서' 빛을 보다



사미니율의 요략역주
혜안 스님 역주/
조계종출판사/
2만2000원



사분비구니 계본주해
불영 스님 주해 · 청암사승가대학 편역
비매품

사미니, 비구니스님을 위한 율서가 발간됐다.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청나라 말 독체 율사가 지은 〈사미니율의요략〉을 온전히 번역·주해(註解)한 〈사미니율의요략역주(沙彌尼律儀要略譯註)〉와 중국의 불영(佛營, 1912~1970) 스님이 주해한 〈사분비구니계본주해(四分比丘尼戒本註解)〉을 번역·출간했다.

사미니만을 위한 교육 교재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사미니를 위한 승가교육 교재로 '사미 계율문'을 가르쳐 왔다. 이번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에서 출간한 독체 율사의 〈사미니율의요략역주(沙彌尼律儀要略譯註)〉는 오롯이 사미니만을 위한 '사미니 계율문' 전문과 '사미니 위의문'을 23장(章)으로 나눠 사미니로서의 바른 행동거지와 몸가짐을 설명하고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 책은 총 상하이문(上下二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편은 십계(十戒)를 설명하는 계율문이고, 하편은 일상의 생활 규범을 설명하는 위의문(威儀門)이다.

계율문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해 왔던 주굉의 '사미 계율문'을 비로소 독체의 '사미니 계율문'으로 바로 잡으며 십계를 설명했다. '위의문'에서는 독체의 '사미니 위의문'에 가사와 발우, 좌복에 관한 항목(衣鉢名相)을 덧붙인 총 23개의 항목으로, 현행하는 '사미니 위의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랐다.

이 책은 무엇보다 "사미니는 온전히 사미니에 관한 〈계율문〉과 〈율의문〉으로 수습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사미니계경〉의 '계율문' 전문을 싣고 있는 독체 율사의 '사미니 계율문'을 온전히 역주(譯註)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청암사승가대학 교수사 혜안 스님의 역주에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의 전문·연구생들이 많은 시간 토의와 검토과정을 통해 번역·교정·교열·윤문(潤文)을 진행했다.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이번에 출간된 이 역주서를 계기로 사미니들이 온전한 〈사미니계경〉을 토대로 계율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대의학적 해석 담긴 율서

〈사분비구니계본주해〉는 요진삼장(姚秦三藏) 불타야사(佛陀耶舍)와 축불염(竺佛念) 공역(共譯)으로 당나라 회소(懷素) 스님이 편집한 것을, 근래에 홍콩 비구니 불영 스님이 주해한 것이다.

해인총림 전 율원장 고천 혜능 스님이 2017년도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특강 중 연구과정 스님들에게 졸업연구과제로 편역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 책의 불사가 시작됐다.

이후 연구생스님들이 전반적인 편집과 번역, 교정과 윤문을 거쳐 1차적인 성과물을 냈으며, 올해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 전문과정·연구과정 스님들의 재검토와 고천 혜능 스님의 면밀한 감수를 거쳐, 비로소 7년 만에 우리말로 소개되는 번역 불사의 결실을 보게 됐다.

불영 스님이 주해한 〈사분비구니계본주해〉 여러 경론을 인용해 계상(戒相)을 상세하게 주석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적인 해석을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청암사율학승가대학원은 "번역서의 출간은 한국 비구니 승가, 특히 한국비구니계단사에 부처님의 계행을 실천할 동량을 키워내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 번역서가 율학을 연찬하고 여일하게 정진하는 모든 비구니 수행자들에게 빛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신중일 기자

269자 속 '空' 가르침 풀어내다



이제야이해되는 반야심경
원영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지사바하"와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라는 경구로 잘 알려진 〈반야심경〉은 사찰에서 하루 세 번 올리는 예불(禮佛) 때는 물론이고, 그 밖의 불교식 행사나 의식마다 스님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함께 독송하는 경전이다. 〈금강경〉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불교 경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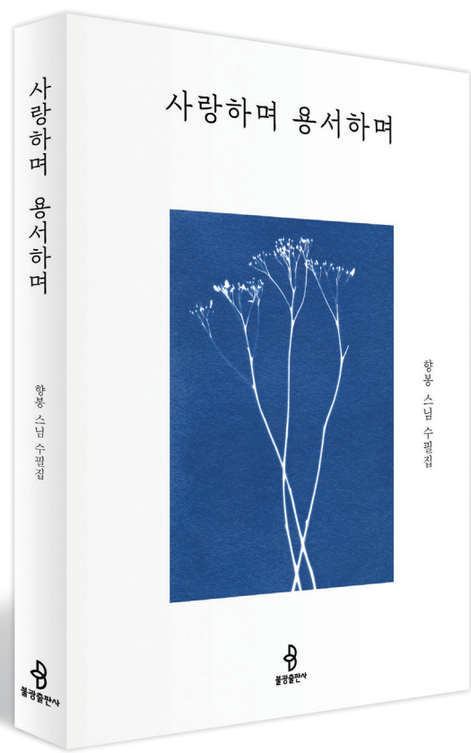
〈반야심경〉이라는 경전의 명칭처럼 전체 60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의 〈반야경(般若經)〉 가운데 핵심을 단 260자로 압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구절구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만을 짚어주지만, 수십 번 들여다보아도 그 속에 담긴 가르침을 오롯이 알기는 쉽지 않다.

원영 스님의 저서 〈이제야 이해되는 반야심경〉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空)'의 가르침에 대해 풀어낸 것이다. '공'이라는 한자의 의미 때문에 더 알쏭달쏭하고 오해하기 쉬웠던 이 가르침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는 '눈높이 설명'으로 알려준다.

이 책은 원영 스님의 TV강의에서 한 수준 더 들어간 〈반야심경〉 강의다. 〈반야심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구절에 담긴 가르침에 대해 낱낱이 풀어준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설명이 아닌 일상 속 쉬운 언어와 공감이 가는 다양한 예시로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단박에 깨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복잡하게 느껴질 만한 개념은 표와 그림으로 표현하고, 조금 더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나 개념은 별지의 형식으로 담아서 이 책 한 권이면 〈반야심경〉이 어떤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중일 기자

『사랑하며 용서하며』는 과연 무엇이 특별한가?
그것은 오로지 하나, 향봉 스님의
가슴 시리도록 처절하고 아름다운 진솔함이다!



1979년 초판 출간 이후
60만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의 고전, 『사랑하며 용서하며』!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읽은 독자들이
먼저 알아보고 강제 소환한 바로 그 책,
1991년 증보판 이후 33년 만에 복간판으로 재탄생하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향봉 스님 수필집

향봉 지음 | 264쪽 | 17,000원

향봉 스님
익산 미륵산 사자암 주지. 상좌도 공양주도 없이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한다. 어린 시절에 백양사로 출가했고, 해인사 선방을 거쳐 〈불교신문〉 편집국장과 부사장을 지냈다.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총무부장, 중앙종회 사무처장,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불교계 '실세'로 활동하기도 했다. 반면에 1973년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으로서, 수필집 『사랑하며 용서하며』가 60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늦은 나이에 철이 들어, 인도, 네팔, 티베트, 중국으로 15년의 치열한 구도행을 떠났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사자암에 머무르며, 머리와 수염이 허연 미륵산의 한가로운 노승으로서 할 일 없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 2023년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을 펴내며, 오래도록 그리웠던 스님의 글맛을 절절하게 펼쳐놓았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불광미디어